

영문법 학습 교재의 5문형 분류 체계

On the Notion of 5 Sentence Patterns in English Grammar Learning Materials

엄태경

삼육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Tae-Kyung Um(muscle88@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많은 영문법 학습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5형식 문형 분류에 대한 설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외국어 학습자를 위해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법을 ‘학습 문법’으로 명명하고, 교재 집필자가 학습 문법을 설정하고 교재를 구성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문법을 ‘참조 문법’으로 규정한 후, 이 두 문법에서의 문형 설명을 비교하여 국내 영문법 학습 교재에서 나타나는 설명의 단순화 및 오류를 검토하였다. 5문형 체계는 일본식 문법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이 분류 방식은 C. T. Onions에 의해 1929년 처음 소개된 이론으로서, 오히려 영어학적 이론 문법이 영문법 학습 교재에 반영된 예로 볼 수 있었다. 특히 ‘필수적 부사구’와 ‘유표적 구문’ 등에 관해 참조 문법의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설명의 시도들도 영문법 학습 교재 내에서 확인되었다. 정확성과 타당성에 기초한 학습 문법을 마련하기 위해 교재 집필자와 교사들이 해외의 권위있는 참조 문법서 및 이론 문법의 연구 성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영문법 학습 교재에서 발견되는 문법 설명의 오류를 피하고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도 더욱 정확한 문법 체계를 교수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영문법 | 학습 문법 | 참조 문법 | 5형식 | 교재 분석 |

Abstract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vestigation of 5 sentence patterns which have exerted a strong influence on the English education in Korea. The ‘learning grammar’, which is defined as the grammar in learning materials, was compared with ‘reference grammar’ derived from linguistic grammar with theoretical accuracy and validity. Although the notion of 5 sentence patterns has been assumed to be vestiges of old Japan textbooks, the classification system was originally established in 1929 by C. T. Onions. Particularly, new explanations regarding ‘obligatory adjuncts’ and ‘marked construction’ were provided in the learning materials, which could be seen as examples of the reflection of linguistic grammar theories on sentence patterns. If reference grammarbooks and the fruits of linguistic grammar research are used actively, material writers can avoid the errors of grammar description and more correct learning grammar can be taught to advanced learners.

■ keyword : | English Grammar | Learning Grammar | Reference Grammar | 5 Sentence Patterns | Textbook Analysis |

* 본 논문은 저자의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을 일부 발췌, 수정·보완한 것임.

접수일자 : 2016년 01월 27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4월 18일

수정일자 : 2016년 03월 24일

교신저자 : 엄태경, e-mail : muscle88@hanmail.net

I. 서론

한국의 영어 교육 환경에서 영문법 학습 교재는 오랜 기간 그 권위와 필요성을 인정받아 왔다. 과거 대학별 본고사와 대학입학 학력고사에 대비하여 전국의 고등 학생들이 학습해야 했던 유명 영어 교재들이 문법 교수요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한 읽기 자료 역시 문법 학습에 이어지는 연습의 하나로 여겨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마치 사전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이 영문법 학습 교재의 설명에 매우 큰 신뢰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영문법 학습 교재의 품사, 형태, 통사에 관한 정보 역시 영어학 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하며, 교재의 문법 설명이 실질적인 영어학의 연구 성과와 유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료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문법’이라 하면 흔히 언어학에서의 형태론과 통사론을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문형 분석은 주로 문장 수준에서 논의되어 왔고, 문법 학습 교재에서도 문형과 관련해서는 문장의 의미나 사용보다 구조와 형태 중심의 설명이 이루어져 왔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 맥락을 고려해야만 정확한 설명과 이해가 가능한 문법 항목이 포함된 문형에 대해서는 문장 수준을 넘어선 담화 차원에서의 설명이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오랜 기간 한국 영문법 학습 교재에서 주요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 ‘5형식 문형’에 관한 설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 과정을 통해 문형 분류 체계와 그 교수 방식에 대한 교육적 제언을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영문법 학습 교재에서 설정하고 있는 문장의 ‘필수 요소’와 관련된 문형 분류 설명의 타당성을 문장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며, 둘째, 형태에 집중되었던 과거의 설명과는 다른 의미와 사용 맥락이 포함된 새로운 영문법 학습 교재의 설명을 정보 구조 및 담화와 관련된 언어학의 연구 성과와 비교·검토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학습 문법과 참조 문법

문법을 언어학 연구에서 다루는 이론 문법과 학습자에게 언어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문법으로 크게 나누어 볼 때,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학습 대상인 영문법 학습 교재의 문법은 주로 후자에 해당되며 이러한 문법에서는 학습자를 위해 그 체계를 단순화하여 설정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실용 문법(practical grammar), 규범 문법(prescriptive grammar)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된다.

그러나 만약 교재의 설명이 초급자의 학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지나친 일반화, 단순화 과정이 적용되고 이로 인해 언어학적 이론 문법의 측면에서는 부정확한 설명으로 여겨질 정도에 이르게 된다면, 학습자들은 고급 과정에 들어가게 된 후 다시 처음부터 문법의 체계를 세워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1].

따라서 교재 집필자가 교재의 문법을 구성할 때 정확성과 이론적 타당성의 잣대로 삼을 수 있는 문법이 필요하며, 학습 대상이 되는 문법의 체계에 언어학적 이론 문법의 연구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연결 고리로서의 문법을 바로 ‘참조 문법(reference grammar)’이라고 부를 때 참조 문법은 규범적인 성격을 띠면서도 언어 현상을 최대한으로 기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문법이라고 할 수 있다[2][3][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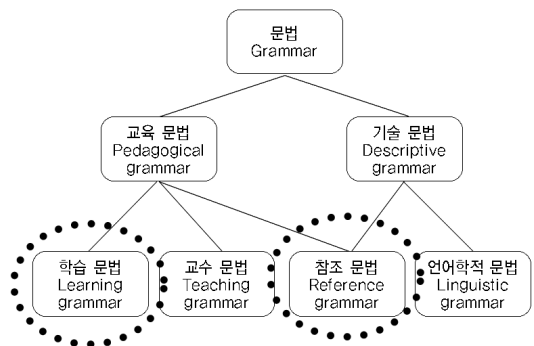


그림 1. 문법의 분류([3]에서 재구성)

2. 영문법 교재의 문법 설명에 대한 선행 연구

해외의 교재 연구 중에서는 다수의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의 교재에서 나타나는 문법 설명의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먼저 Collins, Hollo와 Mar[4]는 50년에 걸쳐 출간된 호주의 영어 교재에 대해 반영된 문법 교수의 접근법에는 거의 변화가 없고, 교재의 저자들이 현대 언어학의 발전에 대해 낮은 수준의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Collins와 Lee[5]는 홍콩에서 출간된 25권의 영문법 교재가 영향력 있는 기술 문법서에서 제시되는 통찰력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의 문법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칙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문법 교재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기준으로서 의미 중심의 문법 범주 정의(notional definition), 문법 부류(grammatical class)와 문법 기능(grammatical function)의 혼동, 라틴어 문법 설명 방식의 사용(Latin bias), 부정확한 사실(factual errors) 등을 제시하였다.

이후 Collins[6]는 인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재 문법 설명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기준을 몇 가지 더 추가하였는데, 언어학의 이론에서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교재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문법 설명(analytical soundness), 단순한 설명을 위해 부정확한 설명을 하는 경우(simplicity at the expense of accuracy), 규범적 문법 설명으로 인해 현대 영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prescriptive bias), 일상적이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영어(non-idiomatic English)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영어학 분야에서도 언어학적 이론 문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어 교재에 반영된 학습 문법의 분류 체계 및 개별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상의 오류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기울어져 왔다[7-11]. 이들 연구에서는 실제 언어 사용의 예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문법 지도의 내용과 방식이 제안되기도 하였고, 특히 영어 교재 연구와 관련해서 특정 문법 항목에 대한 영문법 학습 교재의 설명을 해외의 학습 교재나 참조 문법서, 코퍼스의 내용과 비교하는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3. 영문법 교재의 5문형 분류에 대한 선행 연구

문법 규칙의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문법 설명에 사용되는 구성 요소를 범주화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품사 및 문장 형식의 분류는 영문법 학습 교재에서 영문법 학습의 시작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교수요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어휘의 품사를 분류하기 위해 영문법 학습 교재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8품사의 체계는 1586년 W. Bullokar가 라틴 문법의 품사를 영어에 적용하여 1761년 J. Priestley에 의해 확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12], 한국인에 의해 두 번째로 저술된 영문법서로 알려져 있는 『영어문법첩경』[13]에서 이미 이 분류 체계를 채택하였고 지금까지도 큰 변화 없이 영문법 교재에 소개되고 있을 정도로 그 분류의 전통은 매우 견고하다고 할 수 있다.

어휘의 8품사 체계와 함께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문장의 5형식의 분류 체계는 Onions[14]에 의해 처음 제안되어, 1917년 호소에 이즈키(1884-1947)에 의해 저술된 『영문법법론』을 통해 일본에 소개되었고 이후 이것이 한국의 영문법 교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15]. Palmer[16]가 제시한 동사의 27유형 분류나 Hornby[17]의 25유형 분류에 비해서 매우 단순화되어 있는 이 체계는 기본적으로 동사의 유형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사 이외의 어떠한 문장 요소들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한 문장이 어떠한 형식에 속하는 지 규정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 이 체계 안에서 같은 형식의 문형으로 분류된 문장들이 언어학적 문법의 틀 안에서는 매우 상이한 성격의 문장으로 설명되는 경우도 확인된다.

5문형 분류 방식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8][15][18]이 특정 동사나 어구를 포함한 문장들의 문형 분류가 기존의 체계로는 설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소위 ‘표면 구조’에만 의존하여 문형을 분류해서는 안 되며 일부 문형 분류의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성과를 학습 문법 수준에서 적용하거나 영문법 학습 교재의 내용과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하는 연구는 충분치 않음

며, 또한 오랜 기간 형태에 초점이 맞추어진 한국 영문법 학습 교재에서의 문형에 관한 설명에 최근 문법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형태, 의미, 사용 간의 균형[19]이 반영되어 있는지에 관한 연구 역시 추가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참조 문법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되는 한국의 영문법 학습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법을 ‘학습 문법(learning grammar)’으로 명명하고, 국내·외 영어학 연구의 성과물과 출판사 및 저자를 고려할 때 그 권위를 인정할 만한 해외 문법서의 내용이 ‘참조 문법’의 성격을 띤다고 보았다.

이들 해외 문법서 중에서 영문법 학습 교재의 저자들이 참조 문법서(reference grammarbooks)로서 언급하고 있는 서적 7권을 선정하여 한국 영문법 학습 교재의 문법 설명 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표 1], 관련 언어학적 이론 문법 연구의 성과물에 대해서는 김두식[7], 김애령[8], 김창수와 심수진[9], 한학성[15]의 연구를 바탕으로 Onions[14]의 5문형 분류에 관한 여러 논의를 검토하였다.

표 1. 참조 문법서

(편)저자	교재명	발간 연도
Quirk, R., & Greenbaum, S.	A university grammar of English	1973
Stageberg, N. C.	An introductory English grammar	1981
van Ek, J. A., & Robat, N. J.	The student's grammar of English	1984
Sinclair, J.	Collins COBUILD English grammar.	1990
Celce-Murcia, M., & Larsen-Freeman, D.	The grammar book: An ESL/EFL teacher's course	1999
Greenbaum, S., & Nelson, G.	An introduction to English grammar	2002
Biber, D., Conrad, S., & Leech, G.	Student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2002

2. 영문법 학습 교재의 선정

문형에 관한 학습 문법의 설명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에서 출간된 영문법 학습 교재 15권을 선정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표 2]. 먼저, 1945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 동안 출간된 교재를 선정하기 위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20]의 기사 및 광고 중 영어 교재와 교재의 저자가 언급된 자료를 중심으로 교재 표집 목록을 작성하고, 2000년 이후에 발간된 교재에 대해서는 국내 인터넷 서적 판매 사이트[21][22]와 중고 서적 거래 사이트[23]에서 검색한 교재를 판매량과 인기 검색 순위로 정렬하여 표집 목록을 작성하였다.

표집 목록에서 수집이 가능한 서적에 대해 5인의 영어 학원 강사와 출판사 편집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재와 출판사의 인지도를 고려하고 많은 학습자들이 채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교재를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2. 연구 대상: 영문법 학습 교재

분류 기호	교재명	(편)저자, 역자	발간 연도	출판사
L1	초보 영문법	小野圭 次郎	1953	문성당
L2	영어 구문론	류진	1955	경문사
L3	영문법	Medley저; 역자 미상	1956	선진문화사
L4	알기쉬운 오위일체 중학 새 종합영어	정치근	1964 (7판)	문리당
L5	정통종합영어	송성문	1967	성문각
L6	알기쉬운 삼위일체 메들리 종합영어	Medley저; 공정호,한교석 역	1972 (개정판)	수험사
L7	학습 영문법	박솔음	1981	을유문화사
L8	맨투맨 종합영어 (1-5)	장재진	1983	맨투맨
L9	기초 영문법	이용서	1985	신림
L10	새 영문법	김상철, 김용조, 송종도	1988	교학사
L11	이찬승 고교영어	이찬승	1991	능률영어사
L12	This is grammar: 고급1	김경숙	2003	넥서스
L13	Monster 영문법: 중2	이상휘 외	2012	에듀조선
L14	그래머 헌터	장수용	2013	넥서스
L15	Early grammar 2	Kate Kim	2014	컴퍼스 미디어

상업적 출판 교재는 그 제목이 지니는 의미가 크고,

참조 문법서 및 다른 참고 문헌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제목을 먼저 제시하고 발간 연도순으로 L1부터 L15까지의 기호를 부여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연구 대상 중에는 광복 후 한국의 영어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 小野圭 次郎의 교재와 A. W. Medley의 *Trivium the Threefold Path to English*의 번역 교재도 포함되어 있으며, 학력고사와 본고사가 시행되던 시기에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채택하였던 『성문종합영어』의 초판본에 해당하는 『정통종합영어』 등도 포함되어 있다.

3. 분석 준거 설정

국내에서 여러 연구자들은 변형 생성 문법과 Otto Jespersen(1860-1943)의 여러 저술을 바탕으로 기존 5형식 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완된 문형 분류 체계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7][8][15].

먼저 동사의 유형 분류와 필수적 부사구의 인정 문제는 동사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논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5문형의 분류 체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이론 문법뿐만 아니라 학습 문법 수준에서도 많은 혼란을 야기해 온 사항이었다.

또한 일반적인 ‘SVO’의 순서가 아닌 유표적 구문(marked construction)에 대해서는 문장이 단순히 변형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고 구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설명됨으로 인해 구문의 사용 맥락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문법 항목들을 문장 단위의 문법 규칙과 맥락 의존적 문법 규칙으로 나누어 볼 때, 특히 맥락을 고려한 설명을 통해 정확한 이해가 가능한 담화 민감성이 높은(discourse-sensitive) 문법 항목에 대해서는 그 설명의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11][18][24][25]은 문법적 선택들이 사용 맥락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정보 구조와 관련된 유표적 어순에 대해서 담화와 맥락을 고려한 대안적 설명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9][10][26].

이상에서 살펴본 문장 차원과 담화 차원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기존 영문법 학습 교재에서 ‘수식어구’ 등의 이름으로 5문형 분류 체계에서의 역

할이 간과되었던 부사 및 부사구가 영문법 교재의 문형 분류 체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각 문형은 그 형태와 구조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맥락에서도 차이점이 있음을 가정하고 정보 구조와 관련된 담화 차원에서의 언어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교재의 문형에 관한 설명을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설정한 문법 항목과 분석 준거를 바탕으로 영문법 학습 교재의 내용을 앞서 언급한 참조 문법서 및 선행 연구의 내용과 비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영문법 학습 교재의 설명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문형 분류에 관한 문장 차원 설명 분석

1.1 참조 문법에서의 필수적 부속 요소 반영

많은 참조 문법서에서는 특정 전치사구를 문형 분류에 관여하는 ‘필수적 부속요소’(obligatory adjuncts)로 규정하고 이들이 포함된 문장을 별도의 문형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전치사구는 ‘보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먼저, 장소의 부사구가 필요한 동사가 사용되는 문장을 별개의 문형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be’ 동사 뒤에 부사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문장과 동사 ‘put’이 사용되어 목적어의 장소가 필수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문장을 예로 들 수 있다. Quirk와 Greenbaum[27]은 이 두 동사를 사용하는 문장을 포함하여 문형을 총 7개로 확장하여 제시하고 있고, 한학성[15]도 부사적 요소를 필수 요소로 인정하면서 ‘He put the car into the garage.’에서의 ‘into the garage’는 ‘처소 보어(locative complement)’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목적격 보어의 위치에 전치사구가 오는 경우 이것이 별개의 문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van Ek와 Robot[28]은 ‘You seem to take me for a fool.’에서의 ‘for a fool’처럼 목적격 보어(object attribute)가 ‘as’ 또는 ‘for’로 도입되는 형용사구일 수 있다고 하였고, 또 ‘The party accused its secretary of disloyalty.’에서의

'of disloyalty'를 별도의 보충어 유형인 '서술 보어'(predicator complement)로 설정하여 전체 문장 유형을 7개로 확장하여 분류하는 경우도 있었다.

1.2 영문법 학습 교재에서의 필수적 부속 요소 반영

한국 영문법 학습 교재에서는 'be' 동사가 사용되는 제1, 2형식 문형 중 필수적 부사구를 포함한 문장을 별도의 형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몇몇 교재에서 보충 설명을 통해 그 특수성을 소개하고 있었다. L10(p. 18)에서 'Laura is in the garden now.'와 'Laura is young and pretty.'를 비교 설명하고 있었으며, L11(p. 10)에서는 제1형식에서도 'Mary is upstairs.'의 'upstairs'와 같이 수식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be' 동사 이외의 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부사구를 필수 요소로서 설명하고 있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힘들었는데, 단지 L9에서 'He came home.(S+V+M(부사))', 'I go to school.(S+V+M(부사구))'과 같은 유형을 1형식 내에서의 세부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었으며, L12에서도 5문형 체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Birds fly in the sky.'를 1형식의 예문으로 사용하는 정도로 기술되어 있었다.

제3형식 문형에 대한 설명 중에서는 타동사구와 서술 보어의 설정 문제가 교재 집필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해 온 것으로 보인다. 먼저, 타동사구의 인정 여부는 제1형식 문형과 제3형식 문형의 구분을 어렵게 하는데, L7(p. 47)에서는 'I'll call on him.'의 예문에서 'call on'을 'visit'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완전자동사가 전치사와 결합하는 문장을 제3형식으로 분류하였고, L13에서도 '2어 동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 문형을 제3형식으로 설명하였으나 'belong to', 'consist of', 'wait for' 등의 표현이 쓰이는 문장을 제1형식으로 분류하는 L14와 같은 교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대상 중 타동사의 목적어 뒤에 전치사구를 수반할 때 이 전치사구를 '서술 보어'로 보아 제3형식 이외의 문형으로 분류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L11(p. 14)에서는 'He informed me that she had arrived.'가 제4형식으로, 전치사구를 포함하고 있는

'He informed me of her arrival.'은 제3형식으로 각각 분류되어 있는데, 'inform', 'remind', 'warn' 등이 'of' 전치사구와 함께 사용되는 것에 관한 내용은 여러 교재에서 확인되나, 이 전치사구를 일반적인 수식 어구와 구분하지는 않고 이상의 동사를 사용하는 문장은 모두 제3형식 문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습 문법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take', 'regard' 등의 목적어 뒤에 위치하는 'for'나 'as' 전치구를 목적격 보어로 인정하는 경우는 학습 문법의 수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L14(pp.38-39)에서는 'as', 'for'가 명사나 형용사 앞에 사용된 'I take A for granted', 'I take A for B' 등의 구문과 'consider', 'regard', 'view' 등의 동사가 사용되는 문장을 모두 제5형식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be' 동사+형용사+전치사구」를 하나의 동사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제3형식 문형으로 분류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L9(pp.226-234)에서는 'We were aware of the misprints.'가 'We knew the misprints.'처럼 다른 타동사를 써서 표현될 수 있음을 근거로 두 문장 모두 3형식으로 분류되었으며, 'We are very anxious to see the movie.'와 같이 'to' 부정사를 포함하는 경우도 'We eagerly wish to see the movie.'와 같은 문형의 3형식으로 설명하였다.

표 3. 영문법 학습 교재의 필수적 부속 요소 관련 주요 설명

교재	설명 내용
L9, L11	1형식에서 사용되는 부사(구)가 필수적 요소로 사용되는 경우 설명 (예) 'I go to school.'의 'to school'
L14	「자동사+전치사구」가 사용된 문장을 1형식으로 분류
L7, L13	「자동사+전치사구」가 사용된 문장을 3형식으로 분류 (예) 'I'll call on him.'의 'call on'
L11	'inform', 'remind', 'warn' 등이 동사로 사용되는 문장의 전치사구 서술 보어를 필수적 요소로 인정하지 않고 3형식으로 분류 (예) 'He informed me of her arrival.'의 'of 전치사구'
L14	전치사구를 제5형식 문형의 목적격 보어로 인정 (예) 'She regards herself as a patriot.'의 'as 전치사구'
L9	「be동사+형용사+전치사구/to부정사」가 사용된 문장을 3형식으로 분류 (예) 'We were aware of the misprints.' 'We are very anxious to see the movie.'

2. 문장 사용에 관한 담화 차원 설명 분석

2.1 참조 문법에서의 유표적 구문

제1형식 문형과 제3형식 문형으로 분류되는 ‘there-be’ 구문과 여격 교체(dative alternation) 구문은 과거의 형식 중심적인 설명 방식에서는 문장 성분의 배열에 초점이 맞추어져 각각 ‘SV’ 어순의 문장과 이중목적어를 취하는 문장의 변형문으로서 소개되고, 변형된 문장과 원래 문장과의 의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다[29][표 4].

표 4. ‘there-be’ 구문에 대한 형식 중심적 기술의 예

유형	예문
Type 1	there + be + subject + adverbial of place or time A man is under my bed. → There are two men under my bed.
Type 2	there + be + subject + -ing participle + ∅ or remainder A politician was speaking. → There was a politician speaking.
Type 3	there + be + subject + -ed participle + remainder or ∅ The police found a shotgun. → A shotgun was found by the police. → There was a shotgun found by the police.

그러나 다른 많은 참조 문법서에서는 ‘there-be’ 구문의 담화적 특징을 기술하고 있는데 특히 우위성(dominance) 원리[30] 또는 문미 초점 원리(end focus)와 같은 정보 구조 개념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 구문의 잘 알려진 특징 중 하나는 ‘be’ 동사 뒤의 주어는 반드시 비한정 주어(indefinite subject)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주어 위치에는 정관사나 고유명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문장의 오른쪽 끝에 신정보 또는 중요 정보가 놓이는 ‘문미 초점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19][28][31][32].

이중목적어 구문(ditransitive construction)과 여격 교체 구문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간접 목적어가 문장의 끝으로 가는 경우 다양한 전치사가 사용될 수 있음만을 강조하고 문장의 의미 차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27], 간접목적어가 전치사와 함께 문

장의 뒷부분으로 가는 경우 이를 기본적인 이중목적어 구문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29].

그러나 여격 교체를 제4형식 문형의 변형으로만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전치사구에 대한 분류 기준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한확성[15]은 제2형식의 보어로 명사, 형용사, 대명사가 모두 사용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문형의 분류는 해당 요소의 품사가 아닌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제4형식 문형인 ‘I gave him the money.’의 ‘him’과 제3형식 문형인 ‘I gave the money to him.’에서의 ‘to him’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NP’와 ‘PP’라는 형태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두 문형을 다르게 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간접 목적어가 문장의 뒤쪽으로 가는 경우 문장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으로 설명되는 경우도 많은데, 목적어의 배열과 여격 교체의 이유에 대해서도 ‘there-be’ 구문의 담화적 특징에 대한 기술과 마찬가지로 문미 초점의 원리와 우위성의 개념을 더해 설명하고 있다[32][33]. 즉, 대명사는 대용어(anaphoric referent)로 사용되거나 또는 직접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이미 명료하여 명사보다 우위성이 낮아, 문미에 위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We sent him a package.’의 경우처럼 간접 목적어가 대명사, 직접 목적어가 비한정 명사이면 명사가 문미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Celce-Murcia와 Olshtain[26]은 담화 분석적 측면에서 ‘I gave him the car.’와 ‘I gave the car to Jim.’을 다른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장으로 보고 앞의 문장에서는 ‘the car’, 뒤의 문장에서는 ‘to Jim’이 중요한 정보로서 ‘I don’t see the car. Where is it?’에 대한 대답으로는 두 번째 문장만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흔히 동일한 문장으로 받아들여지는 변형문, 도치문이 사실상 기본적 어순의 문장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므로 문장의 형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기술되어서는 안 되며, 의미와 담화 상황을 고려하여 문형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김두식[7]은 ‘하나의 형태는 하나의 의미를 반영한다’는 Haiman[34]의 도상성 가설(Iconicity Hypothesis)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2.2 영문법 학습 교재에서의 유평적 구문

많은 영문법 학습 교재에서는 ‘there-be’ 구문이 사용되는 담화적 상황보다는 형태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다. L3(p. 248)에서는 ‘문두(文頭) 주어’와 달리 다른 어구 사이에 주어가 위치하는 경우 ‘개재(在)주어’라는 용어를 설정하여 유도부사 ‘there-be’ 구문을 의문문, 감탄문, 부사구로 시작하는 문장 등과 함께 설명하였고, 『‘there-be’+주어+장소』의 구문에서 ‘there’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L3, p. 159-160).

2010년대의 교재에서도(L13, p. 12; L15, p. 44) 주어와 ‘be’ 동사 간의 수의 일치, 의문문과 부정문으로의 변형, ‘there’이 형식상의 주어이며 유도부사구문은 제1형식 문형으로 분류된다는 점 등 형태 위주의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be’ 동사 뒤의 주어가 가지는 비한정성이나 사용 빈도가 높은 분사를 수반하는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려웠다.

표 5. 영문법 학습 교재의 유평적 구문 관련 주요 설명

교재	설명 내용
L3	‘there-be’ 구문을 ‘개재 주어’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장 앞에 나오지 않는 의문문, 감탄문과 함께 설명
L7	‘He gave a ring to her.’ 의 ‘to her’ 가 강조되고 있음을 설명
L13	여격 교체를 3, 4형식의 전환과 동사에 따른 전치사 위주로 설명하고, 전치사가 사용되는 간접 목적어는 생략이 가능한 부사구로 설명
L13, L15	‘there-be’ 구문에 대해 주어와 ‘be’ 동사 간 수의 일치, 의문문·부정문 만들기, 1형식으로의 분류 등 형태 위주로 설명

여격 교체에 대해서는 일부 교재에서 문장의 정보 구조와 사용 맥락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었는데, L7에는 ‘What did he give her?’과 ‘Who(m) did he give a ring to?’에 대한 대답으로서 ‘He gave her a ring.’ 과 ‘He gave a ring to her.’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간접 목적어가 전치사와 함께 문장의 끝에 위치하게 되면 이것이 강조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재에서 여격 교체는 문형의 전환에 필요한 전치사를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었는데, L13(p. 18)의 경우 문장 변형과 간접 목적어 앞의 전치사에 대한

학습을 강조하고 있었으나 전치사와 함께 문장의 뒤에 위치하는 간접 목적어는 생략이 가능한 부사구로 설명되어 문미 초점의 원리는 퇴색되어 있었다[그림 2].



그림 2. 여격 교체에 대한 형식 중심적 기술의 예

V. 결론 및 제언

학습 문법에서 최근의 교재에까지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5문형 체계는 1940년대에 발간된 小野圭 次郎의 교재 등에 수록되어 있어 일본식 문법 체계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이 분류 방식은 C. T. Onions에 의해 1929년 처음 소개된 이론으로서 류진의 『영어구문론』에 매우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으며 오히려 영어학적 이론 문법이 영문법 학습 교재에 반영된 예로 볼 수 있었다.

한국 영문법 학습 교재의 설명은 5형식 문형의 분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부사구가 동사가 요구하는 필수 논항으로 사용될 때 이 필수적 부속 요소가 포함되는 문장을 새로운 문형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도 부사 구문과 제3, 4형식의 전환에 관한 설명은 과거의 형태와 구조 중심의 설명에서 점차 각각의 구문이 사용되는 구체적 이유와 사용 맥락이 교재의 설명에 포함되고 있었으며, 문미 중점 원리와 같은 정보 구조를 사용한 설명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문법 학습 교재의 문법 설명을 해외의 참조 문법서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도출되었으며, 이 과정은 학습 문법과 언어학적 이론 문법과의 관

계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모든 교재 집필자가 이론 문법에 정통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교재의 내용이 학습자의 언어 구사 능력 향상이라는 교육적 효과를 무시하면서까지 언어학적 타당성을 좇으며 설명의 엄밀성을 추구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교재 집필자와 교사가 교재의 문법 사항에 대해 언어학적 이론의 출처를 인지하고 그 이해의 수준을 높인다면 설명상의 오류를 피하고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도 더욱 정확한 문법 체계를 교수할 수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론 문법의 정확성과 타당성에 기초한 학습 문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기술적 성격의 참조 문법서가 국내에 더욱 많이 소개되어야 하며, 교재 집필자와 교사들이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내용적으로 한 단계 발전된 영문법 학습 교재가 개발되고 더욱 정확한 내용이 한국의 학습자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1] K. Shelley, "On the nature of grammar rules used in EFL/ESL teaching," *ELERI Journal*, Vol.5, pp.26-39, 1997.

[2] W. Wang, "How is pedagogical grammar defined in current TESOL training practice?," *TESL Canada Journal*, Vol.21, pp.64-78, 2003.

[3] R. Dirven, "Pedagogical grammar," *Language Teaching*, Vol.23, pp.1-18, 1990.

[4] P. Collins, C. Hollo, and J. Mar, "English Grammar in School Textbooks: A Critical survey," *Australian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Vol.20, No.2, pp.33-50, 1997.

[5] P. Collins and J. F. K. Lee, "English grammar in current Hong Kong Textbooks: A critical appraisal," *TESL Reporter*, Vol.38, No.2, pp.37-49, 2005.

[6] P. Collins, "Grammar in TEFL: A critique of Indonesian high school textbooks," *TEFLIN*

Journal, Vol.17, No.1, pp.1-10, 2006.

[7] 김두식, "고등학교 영문법교육의 개선방안," *중등 교육연구*, 제1권, pp.135-152, 1989.

[8] 김애령, "V NP to VP 구조에 대한 한국 영문법 교육의 오해," *현대영어영문학*, 제51권, 제4호, pp.73-94, 2007.

[9] 김창수, 심수진, "학습자 오류 및 교재 분석: There-구문 중심 문법 지도," *현대문법연구*, 제65권, pp.253-277, 2011.

[10] 원금숙, 이경남,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수동구문 제시방법 분석에 근거한 문법 지도의 문제," *영어교과교육*, 제9권, 제2호, pp.217-237, 2010.

[11] 홍경선, "교육용 문법 관점의 will과 be going to 용법 분석," *영어학*, 제8권, 제4호, pp.523-545, 2008.

[12] 이환목, "학교문법의 성립과 윤곽," *영어사*, 제4권, pp.1-19, 1997.

[13] 윤치호. (1983). *영어문법첩경*, 탑출판사, 1983 (원본발행 1911).

[14] C. T. Onions, *An advanced English syntax based on the principles and requirements of the Grammatical society*, The Macmillan Company, 1929.

[15] 한학성, "영문법에서 문장 5형식 개념의 기원 및 적절성에 관한 연구," *영미연구*, 제19권, pp.153-181, 2008.

[16] H. E. Palmer, *A grammar of English words: One thousand English words and their pronunciation, together with information concerning the several meanings of each word, its inflections and derivatives, and the collocations and phrases into which it enters*. Longmans, Green and Co, 1938.

[17] A. S. Hornby, *A guide to patterns and usage in English*, Kenkusha, 1956.

[18] 배영남, "학교 영문법 교육의 단면," *언어과학연구*, 제16권, pp.211-225, 1999.

[19] D. Larsen-Freeman, *언어 교수: 문법에서 문법*

사용하기로[*Teaching language: From grammar to grammaring*], 김서형, 이혜숙, Miny Kim 역, 지식과 교양, 2012(원서출판 2004).

- [20] <http://newslibrary.naver.com>
- [21] <http://www.aladin.co.kr>
- [22] <http://www.kyobobook.co.kr>
- [23] <http://www.bookoa.co.kr>
- [24] 김경훈, “한국 대학생의 독해지문을 활용한 영어 시제 습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10호, pp.373-380, 2008.
- [25] 김정오, “영어 시제와 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3호, pp.502-510, 2013.
- [26] M. Celce-Murcia and E. Olshtain, *Discourse and contex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27] R. Quirk and S. Greenbaum, *A university grammar of English*, Longman, 1973.
- [28] J. A. van Ek and N. J. Robat, *The student's grammar of English*, Basil Blackwell, 1984.
- [29] N. C. Stageberg, *An introductory English Grammar*,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1.
- [30] N. Erteschik-Shir, Discourse constraints on dative movement. In T. Givon (Ed.), *Syntax and Semantics*(Vol.12)(pp.441-467), Academic Press, 1979.
- [31] J. Sinclair (Ed. in chief), *Collins COBUILD English grammar*, HarperCollins, 1990.
- [32] M. Celce-Murcia and D. Larsen-Freeman, *The grammar book: An ESL/EFL teacher's course*, Heinle & Heinle, 1999.
- [33] S. Greenbaum and G. Nelson, *An introduction to English grammar*, Pearson Education, 2002.
- [34] J. Haiman, *Natural syntax: Iconicity and ero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저 자 소 개

엄 태 경(Tae-Kyung Um)

정회원



- 1998년 8월 : 서울대학교 해양학과(이학사)
 - 2010년 8월 : 연세대학교 조기영 어교육전공(교육학석사)
 - 2015년 8월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학협동과정(문학박사)
 - 2014년 10월 ~ 현재 : 삼육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 클리닉 연구원
- <관심분야> : 교재 분석, 문법 교육, 코퍼스 언어학, 영미 아동 문학